

광양시, 대규모 행사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도약

전통예술 등 올해만 7개 구성
‘굿보러 가자’ 8년 만 개최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등 눈길
“문화 진흥·관광객 유치 기대”

전라남도 광양시가 올해만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7개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24일 광양시는 올해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의 열정을 담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창작발레,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남도영화제,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7개의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먼저 ‘굿보러 가자’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년간 총 121회에 걸쳐 진행된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개최지를 선정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왔다.

광양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오는 5월29일 광양백운아트홀에서 열리는 ‘2025 굿보러 가자 인 광양’은 무형유산과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무형유산 특화공연 ‘2025년 굿GOOD보러가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굿GOOD보러가자’ 공연 모습. **광양시 제공**

를 느낄 수 있는 ‘제2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전남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은 FC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 인기 게임으로 구성됐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결선은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다.

총 500여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대회 현장에 VR 체험, 보드게임, 사진 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운영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

정이다.

9월5일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풀어낸 창작발레 ‘표류’가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표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광양시가 선정되며 마련된 공연으로, 섬에 머물게 된 한 남자가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닫고 자연의 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9월9일부터 11일까지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

최하고, 광양시와 한국예총광양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8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남해안남중권 소속 시군 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작품전시,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작품전시에는 회화, 서예, 사진 등 180여점의 예술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간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는 ‘문화교류의 날’ 프로그램도 마련돼 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월20일 광양 서천면에서는 ‘제15회 광양만권 화합 콘서트’가 개최된다. 광양만권 공동도시인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가족, 직장, 동호회 등 3인에서 15인 이하의 팀, 최대 300명(15명×20팀)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구성원에게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 기반 조성과 건전한 문화 활동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2일부터 11월4일까지는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 2023년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관광·문화·

예술·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해 맺은 교류 협력의 결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함께 국내외 유수의 미디어 작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젊고 감각 있는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창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10월23일부터 27일까지는 전라남도과 광양시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열린다. 남도영화제 시즌2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원과 영상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영화제로, 이번 광양 개최를 통해 전남 문화의 폭과 영화 산업 기반 확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광양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 지원을, 광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을 제공해 광양시가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득량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사생대회 성료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23일 득량면 희망드림협회의체가 득량면 해평호수 일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생대회에는 득량면과 예당 지역 아동센터에 소속된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총 28명이 참여했으며, 득량면 희망드림협회의체의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해평 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예술적 감성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는 ‘창의적인 어린이상’, ‘바른 마음 예쁜 마음상’ 등 개성 있는 상장이 수여됐으며, 소정의 상품도 함께 제공돼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득량면 희망드림협회의체 김한식 위원장은 “이번 사생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보성군 득량면 해평호수 일원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득량면 희망드림협회의체의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여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성군 제공**

다.

박학재 득량면장은 “이번 사생대회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각은 물론 따뜻한 추억까지 안겨준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

으로도 협의회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양종수 기자

우체국쇼핑몰, 여수 농수특산물 할인 기획전

전라남도 여수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특산물 할인 기획전을 추진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달 18일까지 우체국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에서 판매하는 여수시 농수특산물 전 품목에 대해 1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여수 농수특산품인 돌산갯김치와 간장게장, 거문도 해풍썬송편, 멸치, 바지락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여수시 브랜드관은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우체국쇼핑몰 내 개설 운영 중인 시 농수특산물 판매 온라인몰로 현재 42개 업체가 입점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점업체 확대 및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브랜드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재개

전라남도 구례군은 오는 5월12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만료로 인해 중단됐던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정상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례군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1년 23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약 35% 감소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군은 공공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0세부터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진료 기회를 제공한다.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 및 발달 상담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읍 드론쇼’·‘별밤 버스킹 공연’ 함께 펼쳐진다

오늘 오후 9시 고흥군청 앞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공연

전라남도 고흥군은 25일 오후 9시 고흥군청 앞 고흥군민 광장에서 ‘고흥읍 드론쇼’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드론쇼는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연과 연계해 진행되며, 10월까

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고흥 출신 동시 작가 목일신 선생의 작품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자전거’, ‘누가 누가 잡자나’, ‘시냇물’ 등 그의 대표 동시 작품들을 7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시적 이미지를 아름답게 연출할 계획이다.

드론쇼에 앞서 오후 8시에 시작되는 1

부 버스킹 공연에서는 아나운서 박광신의 진행 아래 ‘더 블루 이어즈’의 락, K-pop 공연과 미스터트롯 3 출연 가수 ‘농수로’의 공연이 어우러져, 가요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하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쇼 이후 이어지는 2부 공연에서는 고흥 출신 트로트 가수 김숙행이 열기를 이어받아 공연을 펼친다.

별밤 버스킹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군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고흥군은 유자축제를 비롯한 군 주관 각종 행사에서 드론쇼를 개최해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이를 지역대표 볼거리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매주 토요일 열린 녹동항 드론쇼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고흥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드론쇼 정기 개최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있었다”며 “녹동

항뿐만 아니라 고흥읍에서도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이 개최돼 매우 뜻깊고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쇼는 강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흥=심종우 기자